

## 세계화와 번역

허 명 수

(한동대)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세계화일 것이다. 학자는 물론 경제계, 정계, 행정부의 특정 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도 세계화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조그만 시골의 농부조차도 우르과이 라운드나 WTO 체제나 하는 생소한 외래어에 익숙한 실정이다. 또, 온 국민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지구촌 스포츠를 생중계로 접하게 되고, 미국 뉴욕의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세계적 정보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근저에는 번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던 바벨탑 이후 인간은 번역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번역의 발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방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착취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던 어두운 역사가 드러난다. 르네상스 이래 근대화 과정을 먼저 걸었던 서방의 강대국들은 과학과 산업 기술의 발달을 이

용해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대륙까지 진출해 그곳의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며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번역을 통해 식민지 문화를 흡수하였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전하였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와 작품을 우월하게 여기고, 식민지의 언어와 번역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다. 20세기 중반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지란 단어들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면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에서의 주종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년 전부터 인도나 브라질 등 과거 식민지 상황에 놓여있던 나라의 탈식민지 번역가/작가/이론가들은, 번역이 더 이상 제국주의의 시녀 역할을 하지 않고 모국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화와 번역의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번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세계화의 용어 번역과 정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그 어원이 globe(지구)인데, 공이라는 뜻의 라틴어 ‘globus’에서 유래한다.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뜻으로 ‘globalization’이 명사형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20세기 후반이다. 불어로서는 ‘mondialisation’과 ‘globalisation’이 사용되는데, 올리비에 돌뤼스(Olivier Dolfus)는 “서로 다른 지역들 사이의 교류가 널리 일반화된 현상이 ‘mondialisation’(세계화)이며, 세계화의 마지막 단계를 ‘globalisation’(최혜린은 범지구화라고 번역)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용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도 통일되지 않았다. ‘Globalization’(혹은 ‘Globalisation’)을 한상엽은 ‘지구화’로, 최혜린은 ‘범지구화’로 옮긴 반면, 일부에서는 ‘범세계화’ 혹은 ‘지구촌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학자들은 ‘세계화’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 번역에도 통일이 안 되고 있듯이, 세계화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돌뤼스의 말대로 이 용어가 “모호하고 ‘얼굴’이 없는, 포괄적이고 뚜렷하지 않으며 이름도 없는 어떤 현실들을 함축하기도 하기 때문”(돌뤼스 13)이기도 하지만, 아직 신조어 수준이고 이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계화’란 용어로 통일

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앞으로도 학계에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을 제의한다.

세계화 개념과 용어를 처음 정의 내린 선구자들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롤랜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이다. 탈근대성을 표방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1980년대 이후 문학 사상과 비평계의 화두가 되면서, 이에 비슷하게 근대성 및 탈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학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기든스는 세계화 과정을 근대사회의 발달과 연관시켜 설명하였고, 미국의 로버트슨은 1985년부터 세계화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후로 여러 학자들이 세계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왔다.

세계화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는 점도 의견이 다양하다. 로버트슨은 근대화 이전인 중세 시대에 세계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기든스는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시작을 세계화의 출발로 보았다. 하영선 등은 18-19세기에 “근대 문명의 기원인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제화와 구별하여 20세기의 최근의 흐름을 세계화로 보았다 (하영선 등 11). 위터스는 세계화를 1) 역사의 시작 단계부터 나타난 현상, 2)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 3) 후기 산업화, 후기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 해체 등과 연관된 최근의 현상 등 3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았다 (위터스 15). 돌퀴스는 넓은 의미의 세계화인 ‘mondialisation’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위시한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마지막 단계의 세계화인 ‘globalisation’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되어, ‘정보의 즉각성’, ‘대기업들의 다국적화’, ‘신자유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돌퀴스 17, 35).

학자들의 주장에는 이처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초기 근대화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고 대륙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를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시작으로 볼 수가 있다. 유럽의 과학과 항해술의 발달은 곧 식민지를 찾아 착취하는 제국주의로 이어지고,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된 유럽의 상품들을 식민지 시장에서 소화시키며 그곳의 귀한 천연자원과 유물들을 헐값으로 사들여왔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외형상으론 점차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인 제국주의가 존재하여, 때론 세계화란 이름으로 현대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며,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제공하기 위한 핑크 빛 청사진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세계화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번역이다. 세계적 교류는 번역 없이 불가능하였고, 근대화 이후 세계화와 번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3. 번역이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번역을 광의로 해석해 동일 언어권에서 일어나는 기호의 해석인 ‘바뀌 쓰기(rewording)’, 원문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호의 해석인 ‘진정한 번역(translation proper)’, 그리고 비언어적인 기호의 해석인 ‘형태 바꾸기(transmutation)’<sup>1)</sup>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첫 번째의 경우까지 번역의 범주에 넣기에는 무리가 많다. 번역은 바벨탑 이후 현대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과의 교류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이며 필연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번역이란 최소한 두 개의 다른 언어 사이에서의 기호 및 의사전달인 것이다. 1991년 벨기에의 번역사가인 앙리 반 오프(Henri Van Hoff)에 따르면, 이집트 고왕국 시대인 기원전 3천년 경에 이미 번역이 행해진 기록을 찾을 수 있다(오프 26). 기원전 1100년경 중국의 주나라에서도 주로 사상을 전하기 위해 궁중 관료들에 의해 번역이 행해진 기록이 남아 있다. 기원전 240년경 그리스의 노예 출신인 안드로니쿠스가 『오디세이』(Odyssey)를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서양의 번역사는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발달하였다. 기원전 255년에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 된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Septuagint), 230-240년에 오리게네스에 의해 발간된 『6란성경』(Hexapla), 391-405년에 걸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e)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 세 성서 번역본을 토대로 번역을 하였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불가타 영어번역(AD 1384)과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1522),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서(1535), 제네바 영어 성서(AD 1560), 흄정역(AD 1611) 등 번역이 줄을 이었다.

1) ‘바뀌 쓰기’, ‘진정한 번역’, ‘형태 바꾸기’는 김지원·이근희 공역의 『번역학: 이론과 실제』(2004, 43)에서 인용.

서양에서 성서 번역만큼 동양에서의 번역사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은 불교 경전의 번역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경전의 중국어 번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세기 후한 시대에서 시작되어 송나라까지 약 1000년 가까이 학승 도안(4세기경), 현장(7세기) 법사 등 중국 내의 스님들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후한 초기에 파르티아 왕국에서 온 안세고(安世高)와 중앙 아시아에서 온 지루가참(支婁迦讖), 그리고 5세기 경에 인도에서 온 구마라습(鳩摩羅什) 등이 불경의 중국어 번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번역의 오랜 역사 가운데 번역에 관한 연구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4세기 경의 중국의 도안은 문체와 어휘 선택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는 번역론을 전개하였다. 서양에서는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번역이 증가되며 번역 이론이 더 활발해졌다. 성서의 번역이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인 번역활동이 새 전기를 맞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번역이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쓰지 유미 85). 1540년 돌레(E. Dolet)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좋은 방법』에서 번역의 기본원리를 제시하였고, 이어 17-18세기의 드라이든(John Dryden),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타이틀러(A. F. Tytler), 19세기의 쉴레겔(Friedrich von Schlegel), 아놀드(Matthew Arnold), 피츠제럴드( E. Fitzgerald) 등이 번역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았다.<sup>2)</sup>

그러나, 본격적으로 번역이론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1940년대 말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이후 현대 번역사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로만 야콥슨, 수잔 바스넷, 안드레 르페브르(Andre Lefevere),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 로저 T. 벨 (Roger T. Bell), 모나 베이커(Mona Baker) 등 수많은 학자들이 번역을 학문의 영역으로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1973년 두보아(J. Dubois)의 정의에 의하면, “번역이란 한 언어 혹은 원문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의미와 문체상의 등가를 유지하면서 다른 언어, 즉 목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벨 7). 하트만과 스토크(Hartman and Stork)은 “번역이란 특정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 표상을 다른 언어의 등가적인 텍스트 표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Hartman and Stork 713). 로저 T. 벨은 번역을 ‘번역하기(translating)’와 번역 과정의 산물로 번역된 텍스트인 ‘번역물(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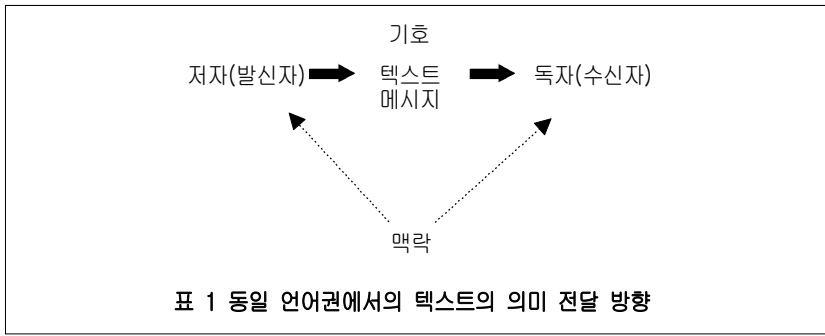
2) 김효중의 『번역학』과 Susan Bassnett의 *Translation Studies* 참조.

translation)’과 번역 과정과 번역 과정의 산물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번역(translation)’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이 번역학을 좀 더 학술적인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개가 번역의 행위에 중점을 두는 번역가들과 좀 더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분야로 번역을 연구하는 학자 사이에 보다 더 밀접하고 깊은 통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번역에 관한 연구도 번역사적인 분야, 언어(학)적인 분야, 비평이론을 응용한 분야, 실무 경험 위주의 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교차적으로 또는 통합적인 연구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번역학에 관한 역사도 미천하고 저변확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통합적인 연구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 번역학에 관한 고민과 연구 없이 사전만 들고 자신의 언어 실력에 의존해 번역에 매달리는 번역가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에, 번역의 이론만 연구하고 실지로 번역에 종사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실무 경험이 많은 번역가와 이론가들의 서로의 문제점과 이슈들을 토론하는 해결하려는 공동연구도 한국의 번역이 더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4. 번역 텍스트의 의미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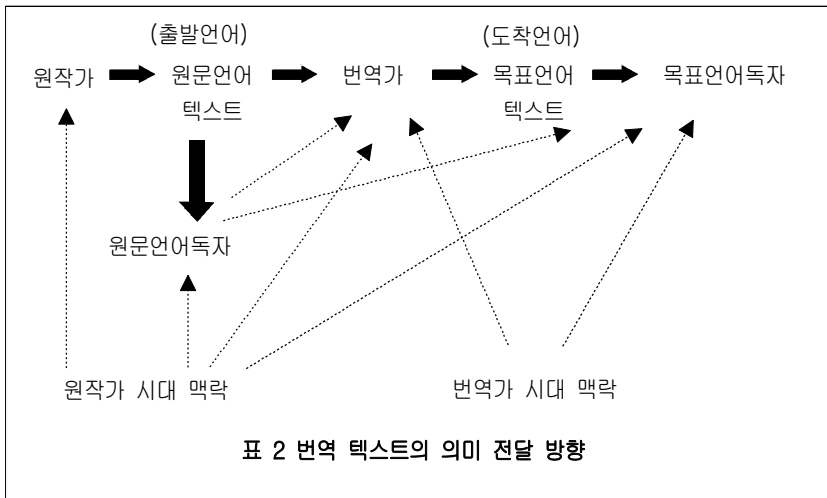
위에서 인용한 번역에 대한 정의에서의 키워드는 ‘원문언어’, ‘목표언어’, ‘텍스트’, ‘등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개의 다른 언어가 존재하며 두 언어간에서 서로 등가를 매길 수 있는 상관된 내용의 전환과 교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교류는 발화자와 수화자 단 두 사람만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간, 문화간, 언어권간, 국가간의 교류로 이어지며, 결국 세계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교류는 동일 언어를 쓰는 두 사람간의 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일 언어권에서는 텍스트의 의미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달된다.



텍스트의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도 시대에 따라 중점을 달리 두었다. 여기에서 문학 비평이론의 차별성이 이루어졌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저자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신비평시대인 20세기 초에는 텍스트 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독자들의 읽기와 의미 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시대적인 배경과, 인권, 문화, 종교, 환경문제 등 맥락(context)에 초점을 맞춰 읽으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심리 비평, 신화 비평, 문화 비평, 페미니즘 비평, 환경비평, 탈식민지 비평, 신역사주의 비평 등이 파생되었다. 의사전달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은 언어학적인 텍스트 이외에도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기호를 통한 메시지도 중요시하고 있다. 예컨대, 나이다(Eugene A. Nida)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에서 목소리의 억양과 높낮이 질 등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준언어학적인(paralinguistic) 요소와 몸짓, 손짓, 몸의 위치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외적인(extra-linguistic)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동일 언어권에서도 이처럼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많은 변수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인 번역에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번역이란 다른 언어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원저자가 사용한 원문언어의 기호가 두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번역가를 통해 목표언어와 등가를 갖는 기호로 전환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정립되며, 결국 세계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사실 다른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사이에서의 텍스트의 의미와 정보 전달에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전개된다. 원작가는 텍스트를 쓸 때 당시의 독자와 맥락만을 생각하며 쓰지만, 번역가는 원작가 시대는 물론 자신

의 동시대 독자와 맥락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 언어권에서 다른 언어권으로 번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 된다.



위의 도표에서 실선은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들로 텍스트가 전달되는 방향이라면, 점선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창작, 번역, 읽기 과정에 개입하는 방향이다. 원작가와 번역가가 동시대의 사람이라면, 맥락에 있어 시간적인 차이 보다는 공간적인 차이만 드러나겠지만, 시대가 서로 다르다면 좀 더 복잡해진다. 물론 번역물을 읽는 독자가 원작가 시대의 맥락과 독자들에 대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해 쉽지가 않지만,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읽기를 위해선 이런 방향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번역가는 이런 분야에서 일반 독자들 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를 거친 뒤 하는 것이 전문번역가로서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번역가는 독자이면서 저자이다 번역가는 재생산자이며 동시에 창조자이다.

앞의 문학이론에서처럼, 번역이론은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번역은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는 작업이다.”라고 주장한 엔질로티(Angilotti)는 원작가를 중요시한 반면, 독자 중심의 읽기가 중요시되는 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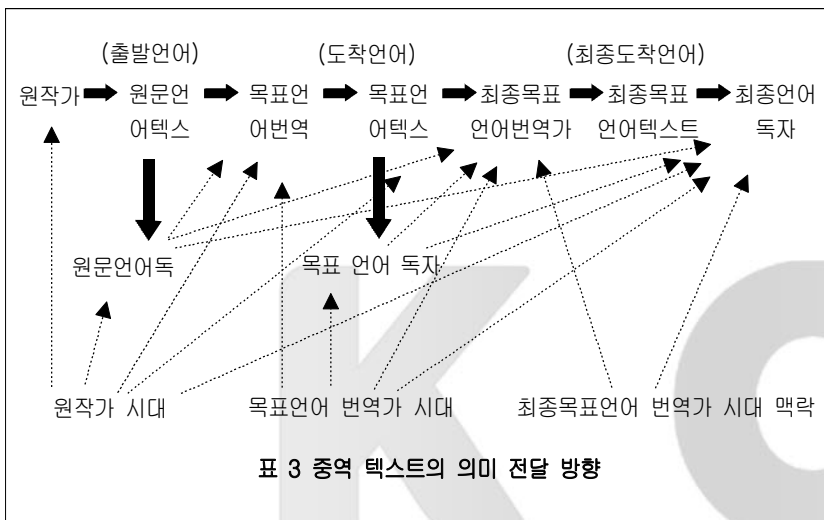
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번역가-목표언어 텍스트-목표언어 독자가 원작가-원문 텍스트-원문 독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 원작가시대나 번역작가 시대 간의 언어적인 측면을 중시하면 비교언어학적 측면에서의 번역이론이 가능하고, 두 시대의 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비교문학적인 번역이론이 가능하다. 또 두 시대의 맥락에 더 중요성을 두면 앞서 문학비평 이론을 응용하게 되므로 번역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오랫동안 번역가들 사이에 벌어졌던 직역과 의역에 대한 논쟁 역시 번역학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직역이나 축자역이 원문 텍스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번역이라면, 의역이나 변안(adaptation)은 목표언어 독자를 중요시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줄리안 하우스(Juliane House)는 목표언어 독자 중심적인 경향으로 인해 텍스트에 기초한 접근이 소홀히 되는 점을 지적하며, 원문 텍스트와 목표언어 텍스트의 비교를 번역품질평가의 기초로 삼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House 159). 세이거(Juan C. Sager)는 목표언어 독자가 번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하는 변안과 원문언어 텍스트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지키려는 문화보존 번역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ager 79). 이러한 갈등에 민감하면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방침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다블네트와 비네이(Darbelnet and Vinay)은 번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용(borrowing), 모사(loan translation), 대어역(literal translation), 전위(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변안(adaptation)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47-55; 최정화의 『통역번역입문』와 지정숙의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기초이론』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예문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런 방법도 사실은 앞의 3 가지는 직역, 뒤의 3 가지는 의역에 가까운 번역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번역과정에서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고, 문장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복수의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번역은 물론이고 다의성과 동음이어를 포함하는 문학 작품의 번역은 원작가 시대와 번역가 시대의 텍스트들만 아니라 문맥들도 파악하여야 보다 훌륭한 번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반영하여 번역을 하더라도 야콥슨이 주장한대로 완벽한 번역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은 반역이다(traduttore traditore)”라는 오래된 이태

리의 속담이나, “그리스 작품을 번역으로 읽는 것은 무용하다. 번역은 불확실한 등가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단언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나 “시는 번역에서 없어진다.”라고 주장한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말들을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번역이 원작품을 소멸시키거나 원작과 동일하다기 보다는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진 창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에 의해서거나 악의적인 의도 하에 생긴 오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번역은 오히려 많은 독자들에게 원작을 소개하고 다양한 읽기를 통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 2의 창작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기계번역은 정보 전달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지만, 문맥을 살리는 번역이나, 문학 번역 등의 창작활동에서는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위의 경우는 번역가가 원문언어 텍스트에서 직접 목표언어로 번역을 하였을 경우지만, 중역의 경우 이 관계는 이 보다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한 정보와 지식의 네트워크의 흐름도를 생각하며 읽기를 한다면, 번역 작품의 읽기는 매우 다양하고도 흥미로울 수 있다. 원문언어-목표언어-최종언어 / 원작가-목표언어번역가-최종언어번역가 / 원작가 시대 맥락-목표언어

번역가 시대 맥락-최종목표언어 번역가 시대 맥락 /이런 사이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한다면 흥미로운 읽기뿐 아니라 서로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오역을 발견하며 그 이유를 찾는 연구는 더욱 번역에 관한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나 아마추어 번역가들의 오역을 통해 두 문화와 언어간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흥미로운 분야이다. 오랫동안 번역가와 창작가의 길을 걸어온 안정효의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번역편』과 『번역의 공격과 수비』 등은 특히 좋은 예이다. 다양한 번역 작품과 번역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시대와 언어, 문화의 교류를 넘어 지구촌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 5. 원문언어-원작가-원작의 우월성 해체

앞서 번역텍스트 읽기가 얼마나 흥미롭고, 세계화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언급하였지만, 이는 더 나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원문언어-원작가-원작의 우월성을 해체하는 데에도 단초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원문언어와 목표언어 두 언어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는 수천 년간 언어의 교류 속에서 세계화를 이루어 오면서, 초기에는 많은 경우에 두 언어 사이는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 군사, 정치적으로,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강국들이 속국이나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역과 번역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곧 자신들의 언어를 속국의 모국어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의 경전을 알리고 교리를 선포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통역과 번역이 필요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원어인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의 경우 유럽의 공용어에 해당하던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것이 다시 라틴어, 불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신약성서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이후 구약성서와 같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문학이나 예술, 사상, 과학 등에서 앞선 나라의 위대한 작품들이 다른 후발 나라에 번역으로 대중에 전해졌다. 고대 영국이나 프랑스 문학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을 번역하면서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성서의 일부를

번역하거나, 기독교적인 기적극이나 도덕극 또는 성자전들을 번역하면서 자국내의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번역을 통해 선진국의 문학과 문화종교 등이 후진국에 전달되어 문화적인 주종관계도 이어졌다.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식민지국가이거나 약소국일 경우에는 다른 대국의 언어를 거쳐 중역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원문언어의 텍스트와 최종 목표언어 텍스트 사이에는 많은 거리감을 보일 뿐 아니라, 최종 목표언어로 된 번역물은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며, 그 번역물에 대한 가치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19세기와 20세기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태평양 연안국가 등의 약소국가들은 세계의 명작들이나 정보들을 이런 중역을 거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 소개된 영미 작가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소개된 것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한 부분 일본어나 중국어 번역판을 참조하여 중역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번역사업에 투자할 수 없던 약소국가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원전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의 언어로 된 번역본을 참조한 중역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심한 경우는 원문 텍스트는 거의 보지 않고 중역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초기 번역사에 흔히 일어났던 일이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국가들의 번역작업은 매우 활발한 반면, 세계화의 흐름에서 처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번역에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였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원문언어는 목표언어보다 우월성을 가졌고, 원문은 번역문보다 귀하게 여겨졌고, 원작자는 번역가 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가의 역할은 거의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원작가의 그늘에 가려져 왔고, 번역작품은 원작품보다 평가절하 되기 일쑤였다. 물론 그렇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번역가와 원작가의 사이가 그다지 심한 격차가 있지는 않았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가 집권하던 1328년부터 1589년까지 번역가의 위치가 가장 높았던 시대도 있었다. 르네상스 이후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번역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본국과 식민지와의 거리를 두면서 번역에 대한 차별성이 강하게 되었다. 번역의 행위가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역할로만 간주되곤 했다.

번역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제국주의의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

만, 세계가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한 지구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세계화는 원문언어가 목표언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두 언어권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가치와 대우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뛰어난 작가를 배출하고도 노벨문학상에 오른 작가가 없는 것은 원작보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주요 언어로의 번역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구태여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글로 된 우수한 작품이 서 말이나 되면 뭐하는가, 세계의 독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으면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는 원작/원작가와 번역/번역가 사이에 대대로 이어져온 주종관계가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번역료에 대한 논쟁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번역가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들을 사실상 많다. 델리슬(Delisle)과 우드워스(Woodworth)가 편찬한 『역사에 기억될 번역가들』(*Translators through History*)에 기고한 번역가/번역이론가들은 번역가들의 다양한 활약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알파벳을 고안하고, 언어를 발전시키고, 문학을 시작하고, 지식을 전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를 전파하고, 문화적 가치들을 전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역할 등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점들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번역이 모방이나 열등한 복사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재창조물 혹은 창작물이라는 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질 출신의 번역학 이론가인 캠프스(Harold de Campos)이다. 그는 새로운 신조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번역의 역할을 제시했다. “verse making, reinvention, project of recreation, translumination, transparadisation, transtextualization, transcreation, transluciferation, petic reorchestrations, reimagination.” 비에라(Else Ribeiro Pires Vieira)는 캠프스의 이런 신조어를 설명하면서, “re”나 “trans”의 접두어가 “독백식의 진실에서 물려받은 전통의 변형적인 재창조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Vieira 96-97). 일방적인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서로간의 교류를 지시하면서 식민지 국가가 수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재창조의 위치를 번역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캠프스는 1981년에 저술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의 하나님과 사탄』 (*Deus e o Diabo no Gausto de Goethe*)에서,

“부친살해적인 탈기억(a parricidal dis-memo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이란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부재 가운데에 그를 대신할 다른 육체로 지속된 존재를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심리학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써, 헤롤드 블룸(Herold Bloom)의 후배작가가 선배작가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찾기 위한 갈등을 분석한 “영향의 염려(anxiety of Influence)”와 연관된다. 또, “dis-memory”에서의 하이픈(-)은 기억의 단절과 연결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캠프스는 번역을 “수혈(transfusion of blood)”로 비유하였다. 비에라는 이것이 원문 텍스트/목표 텍스트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원본과 번역을 제 3차원에 올려놓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을 공유한다고 보았다(209). 이렇듯 오늘날에는 번역이 독자적인 위치를 찾아가려는 의식이 매우 보편화 되고 있다.

## 6. 탈식민주의 번역

번역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세계화를 촉진시켜주기도 하였지만, 제국주의의 착취와 번역의 수단이 된 어두운 면도 놓칠 수 없다. 특히, 탈식민주의 이론이 소개되던 20세기 후반부터 번역연구에도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점들이 부각되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강국들이나 이집트와 로마 등 세계를 정복하던 국가들이 번역을 통해 점령지를 통치하였듯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된 강국들은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며 식민지를 확장할 때 통역/번역가를 적절히 이용했다. 1519년 멕시코를 정복한 코르테스(Hernán Cortés)도 노예 출신의 아귈라(Aguilar)와 추장의 딸인 마리나(Marina)를 통역관으로 만들어 원주민들을 통치하고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아귈라는 주로 마야어를 마리나는 아스텍 언어를 구사하였기에, 에스파냐어·마야어·아스텍어 사이에 소위 ‘릴레이 통역’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마리나는 코르테스의 통역자일뿐 아니라 애첩으로서 자신의 부족을 배반하고 스파이 역할도 마다 않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코르테스의 멕시코 원주민들의 통치에 기여한 바가 많다. 이렇듯, 통/번역은 “아메리카 속에 유럽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행

위”가 되기도 하였다 (Cheyfitz 104). 번역이 “식민주의 아래서 움직이는 힘의 불균형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다 (Niranjana 2).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유럽을 원문으로 식민지들을 복사본 또는 번역으로 여기면서 전자에게는 우월성을 후자에는 열등감을 공공연히 심어주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버리고 유럽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받게 되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식민지에 모국의 도시 이름을 본 따 복사본처럼 생각하였다. 예컨대, 코르테스 군대는 멕시코를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라고 불렀고, 북미지역에 정착한 영국과 불란서 등 유럽계 이주민들은 New England, New York, New Orleans, New Hampshire 등의 지명을 지었다.

이런 식민지와 유럽의 제국주의 사이의 주종관계의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의식은 탈식민지 비평으로 식민지 역사를 다시 읽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6세기 브라질의 투피남바(Tupinambá) 부족 원주민들이 사딘하(Sardinha)라는 가톨릭 신부를 먹어버린 역사적 사건을 다시 읽기는 흥미롭다. 식민지의 식민종도인이 서양 신부를 먹어 치운 한 끔직한 사건을 이 사건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원주민들에겐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어떤 면에선 신부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사단하 신부가 설교한 그리스도의 성만찬 의식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제자에게 먹인 종교적 상징성을 토인들은 자신들의 식민문화 속의 문자적인 해석과 혼동하여 신부를 먹어 영양을 보충했다. 바스네트(Bassnett)와 트리베디(Trivedi)는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유럽의 식민지 생활을 겪고 난 나라들이 문화적, 정신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주민이 신부의 몸을 먹은 것은 유럽인들의 코드를 어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경의의 표시였듯이, 브라질처럼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유럽을 먹어 치워야만 자신들에게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았다 (Bassnett & Trivedi 1-4). 유럽을 먹는다는 것은 앞에 언급된 캠프스의 “수혈”의 은유와 연결되어 설명되어 진다. 유럽에서 수입된 문화를 수혈 받아 번역가는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가 된다. 또 그는 다시는 허약하지 않고 건강한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가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만찬식의 의식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빵과 포도주로 영적인 살이 찌듯이 서구의 살과 피를 먹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유럽의 영향으로 근대화 과정을 걷고 서양문물도 받아들였지만, 종속적인 관계에

서 벗어날 만큼 성장하였다. 또, 이제 번역은 더 이상 원본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며, 원문텍스트에 종속적인 관계에 서지 않는다. 요컨대, 캠프스는 번역을 독백이 아닌 ‘대화’로, 번역가는 ‘전능한 독자이자 자유로운 작가’로 여겼다 (Bassnett & Trivedi 5). 이럴 때야 비로소 유럽인들은 식민지였던 나라를 더 이상 독자의 나라가 아닌 창작자의 나라이며, 배우는 나라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이며, 듣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하는 나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어두웠던 과거의 종속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독립적인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과정에 필수적인 단계이다.

## 7. 현 우리나라 번역학의 과제와 맺는 말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와 과학적인 한글과 찬란한 문화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었고, 국제 영화제나 문화엑스포, 또 올림픽과 월드컵 등도 개최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세계화에 앞선 듯이 보인다.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통역과 안내를 맡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통/번역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계화와 통/번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수와 질적으로 빈약하며, 번역학에 관한 분야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화와 번역의 흐름은 주로 힘을 가진 정복자나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번역가들의 시각이 근시안적이고 의식도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다가, 45년간 일본의 식민지생활을 거친 뒤 곧 이어 미국을 위시한 유럽 강국의 문화적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중국의 경서와 불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번역사가 시작 되었지만, 한문에 비해 언문으로 불리면서 언어의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며, 사대사상의 일면을 보였다. 서양문학 번역은 1895년에 이동 번역의 『유옥련전』인데, 『천일야화』의 일본 번역 작품인 『아라비안 나이트』(1884년) 를 한글로 옮긴 것이다. 이처럼 초기 번



역에서부터 10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서양 작품들의 번역은 원본에 의한 것보다는 일본어를 거친 중역이 많아 독립적인 번역의 노하우를 갖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번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1888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 게일(J. S. Gale)이 번역한 존 번연의 『천로역정』(1895년)을 필두로 주로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사가 시작되었다. 게일은 이름부터 번역하여 한국 명을 기일(奇一)로 정하고, 한글성서 번역은 물론 1897년에 『한영대사전(韓英大字典)』(Korean-English Dictionary)라는 한국 최초의 영어사전을 발간하고, 『한국풍속지』,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 한국의 고전을 영역하여 세계에 소개하였다. 게일은 물론 그 보다 3년 일찍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미국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하면서, 영-한 성서 번역이 시작되며 번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런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서양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세계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존도로 인해, 오늘날까지 미국 위주의 번역, 그것도 한영번역보다는 영한번역에 치중되어 받아들이기 급급한 실정이 되고야 말았다. 거기에다 미국 유학과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매일같이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대중 소설, 전문서적들이 번역되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도착)언어인 한국어로의 번역과정에서 우리의 것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번역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탈식민지 비평 관점을 갖고 텍스트를 번역하고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직 브라질의 캠프스 같이 탈식민지 관점으로 번역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고에서 탈식민지 번역 비평이 우선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읽기의 미흡함을 논하고자 함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수입에 의식 있는 전문번역가는 극히 드물고, 그저 직업으로서의 번역, 하루하루 밥벌이에 급급한 가난한 번역가들에 의해 주도된 우리나라의 번역계의 현실에서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소일거리나 부수입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게서도 재창조된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다양한 번역학 이론과 번역 작품 읽기의 묘미에 대한 의식 없는 번역활동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 산발적이고 개인

적인 번역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번역의 질에 대해 평가 없이 영세 출판업자와 하루살이 번역가들의 손에서 나오는 수많은 번역물들은 대체 우리 문화 속에 어떤 위치를 갖는가?

이런 어두운 우리나라 번역의 현실은 결코 우리나라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번역에 대한 의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양에서는 1450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를 통해 성서는 물론 중요한 서적들이 대량으로 번역되고 출판되어 고전을 다시 읽게 되어 르네상스를 열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어 종교개혁을 이루고, 번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도입으로 근대화화 세계화가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무려 200년이나 훨씬 전인 1234년(고종 21)에 이미 『상정고금예문』을 금속활자로 찍어냈지만, 출판된 서적들은 궁궐이나 일부 관리와 선비들의 집 담장 밖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1377년에 인쇄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도 일부 승려들만의 것으로 절 담 밖을 넘지 못하였다. 이 ‘직지’는 200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유산이지만, 그나마 고종시대에 제국주의 프랑스로 유출된 이후 아직 반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대로 중국의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인 것처럼 한문위주의 과거제도와 국가 조직이 운영되었기에 번역사업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 결과 외국과의 교류에도 한문을 사용하였기에 번역이 크게 발전되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적이 세계에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고 세계화에서도 뒤쳐지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번역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번역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발전시켜 오늘날 번역대국임과 동시에 세계화에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작가들이 노벨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 것도 상당한 부분 번역의 우수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작가들의 작품들은 발간 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 나간다. 일례로, 요시모토 바나나(吉本 ばなな, 본명 요시모토 마호코 吉本 眞秀子)라는 일본의 신예 여류작가는 23세가 되던 1989년에 『키친』을 발간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미 한국어를 포함하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등 30 여 개국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고 전 세계에 바나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그녀의 다

른 작품인 『엔.피』는 이탈리아에서 번역되어 발표된 뒤 1993년에 번역서에 수여되는 ‘스칸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번역을 통해 꾸준히 세계 문학과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의식의 전환은 여러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번역가는 독자/창작자/번역가의 위치에 서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만 원문텍스트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멀리서 텍스트를 보고, 앞의 도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관점과 방향을 갖고 번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브라질의 캠프스처럼, 우리의 번역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방식을 표출하며 과거 서구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주종관계를 해체하고, 그들에게 충격과 경의를 동시에 주고, 배우며 동시에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서 동등한 세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원문작가가 갖지 못하는 번역의 테크닉과 새로운 관점으로의 읽고, 전 지구촌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국제 감각을 갖는다면 번역가야말로 세계화의 전방에 서게 될 것이다. 번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마음에 품고 익혀야 할 것이고, 정부나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번역가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줄만한 예산 책정과 아울러 정책수립에 대한 대 의식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 참고문헌

- 김지원 · 이근희 옮김.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Susan Bassnett. 1991.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김효중. 1988. 『번역학』. 민음사.
- 박경자 · 장영준 옮김. 2000. 『번역과 번역하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Roger T. Bell. 1993.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ongman.)
- 이희재 옮김. 2001. 『번역사 산책』. 서울: 궁리출판. (Tsuji Yumi. 1993. *Honyahushi No Promenade by Tsuji Yumi*. Misuzu Shobo, Ltd.)

- 안정효. 2002.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서울: 우석.
- 안정효. 1998.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 최혜린 옮김. 1998. 『세계화』. 서울: 한울. (Olivier Dolfus. 1997. *La mondialisation*.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김난주 옮김. 1999. 『키친』. 서울: 민음사. (吉本 ばなな. 『キッチン』. 1987.)
- 이기철 옮김. 1998.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Malcolm Waters, 1995.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 지정숙. 2002.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기초 이론』. 서울: 문예림.
- 최정화. 1998. 『통역번역입문』. 서울: 신론사.
- 하영선 등 공저. 2000.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 중국, 일본』. 서울: 집문당.
- Bassnett, Susan. 1991. *Translation Studies*. Revised Edition. London: Routledge.
- Bassnett, Susan and Harish Trivedi, eds.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ll, Roger T. 1993.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ongman.
- Cheyfitz, Eric. 1991. *The Poetics of Imperialism: Translation and Colonization from the Tempest to Tarza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Campos, Harold. 1981. *Deus e o Diabo no Gausto de Goethe*. Seo Paulo: Perspectiva.
- Delisle, Jean and Judith Woodworth, eds. 1995.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ubois, J. et al.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Paris: Larousse.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rman, Julie A. 1993. *Community that is Christian*. Wheaton: Victor Books.
- Hartman, R. R. K. and F. C. Stork. 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Applied Science.
- Hoff, Henri Van. 1986. *Petite histoire de la traduction en occident*.
- House, Juliane. 1977.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bingen:

Narr.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s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dar, Eugene A. 1984. *Signs, Sense, and Translation*. American Bible Society.
- Sager, Juan C. 1998. "What Distinguishes Majors Types of Translation," in Mona Baker ed. *The Translator*. Vo.4, No.1.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Tejaswini, Niranjana.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ieira, Else Ribeiro Pires 1999. "Liberating Calibans: Readings of Antropofagia and Harold de Campos' Poetics of Transcreation," in Bassnett, Susan and Harish Trivedi. ed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95-113.
- Vinay, J. P and J. Darbelnet. 1976. *Satylistique compare du francais dt de l'anglas; methode de traduction*. Dideir. Paris.

K C I

[Abstract]

## Globalization and Translation

Hur Myung-soo  
(Handong Global University)

Globalization is no longer a new coinage. The moder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networks enable most people to observe and respond immediately to worldwide activities and conflicts, hence the era of globalization. Translation is a key word to the worldwide networks. So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is very important to lead the world, where the human beings are interrelated in the networks of communication based on translation (interpretation as well).

Globalization seems to have begun in the early Modern Ages, when new continents were discovered and so the old and new worlds interacted to each other through translation. But examining closely the histories of both globalization and translation reveals the dark side of imperialism, as well as the positive side of international bonds. On the one hand, translation allows us to understand the other texts written in different languages by the people whose thoughts sprang from different contexts (cultures, religions, thoughts, etc.) Understanding other texts, therefore, leads to the flexible and various perspectives, and ultimately to clos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hence globalization.

On the other hand, translators became servants to imperialists who colonize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exploited their people. Marina is a case in point. She was a daughter of a Mexican chief but served as translator and mistress to Hernán Cortés. Without her, Cortés could not manipulate the Mexicans so quickly and successfully. The imperialists believed their own

(source) language and original writer to be better than the (target) language of the colony and translators. This kind of binary opposition had long been a tradition in the eyes of the imperialists. But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post-colonial writers and translators such as Harold de Campos, a Brazilian translator, began to try to change this biased view. They suggested an equal relation between the source language(culture) and the target language(culture) or even an initiative role of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Likewise, the translator can play an independent and creative role—not as a servant any longer but as a creative writer.

While such postcolonial writers rang their own postcolonial voices, Korean translators and scholars of translation have been mute yet. Historically speaking, Korean translators have long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Super Powers like China, Japan, and America. They have spent most time on translating Chinese, Japanese, and English texts into Korean. Now we should spend more time on translating our texts into other languages, not only the mentioned languages but also French, German, Spanish, and so on.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has not yet invested enough money for the translation, partly because officials have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translation in terms of globalization, partly because translators failed to persuade them. Now it is high time that changed their minds completely. To advance the translation studies and activities is to lead the worl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주제어: 세계화, 번역, 번역 텍스트, 원문언어, 목표언어, 원작, 탈식민주의 번역.